

##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과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 금지

1637년, 시마바라 번의 번주 마쓰쿠라 시게마사와 그의 아들 가쓰이에의 폭정과 기근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봉기를 이끈 사람들은 과거 기리시탄 다이묘(영주)의 옛 가신이자 그리스도교 금교 후에 농민으로 생활하던 기리시탄의 촌장들이었습니다.

시마바라의 하라 성에서는 2만 명 이상의 봉기군들이 농성했습니다. 그에 반해 막부군의 병사는 12만 명으로 네덜란드 선박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4개월 간의 전투 끝에 봉기군 대부분이 사살되면서 진압되었습니다. 이 봉기를 처음부터 기리시탄이 주도했다고 판단한 막부는 이후 기리시탄에 대한 탄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1639년, 새로운 선교사가 일본 국내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막부는 모든 포르투갈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유럽인 중에서는 네덜란드인과의 무역만을 허가했습니다. 1641년에는 히라도에서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네덜란드 상관을 이전시켰습니다. 이후, 일본의 대외 무역 정책은 금교 정책과 함께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2세기에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 호적 대장의 작성

데라카타몬토초(寺方門徒帳)는 개종을 강요당해 절의 신도가 된 주민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1616년에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데라카타몬토초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적 대장은 1634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후 에부미(신앙심을 증명하기 위해 성화상 등을 밝게 했던 방법)를 따른 사람에게는 표식을 부여하는 종교적인 요소가 호적 대장에 적용됨에 따라, 슈몬아라타메(기리시탄이 아님을 확인하는 제도)와 데라우케 제도(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개종을 강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 잠복 기리시탄의 적발

이처럼 엄격한 금교기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모든 선교사들이 체포되면서 대부분 순교했으나, 그중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644년에 마지막 선교사인 고니시 만쇼가 순교하면서 일본은 기리시탄을 지도할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657년, 기리시탄의 대부분이 처형되거나 개종을 강요당하는 가운데, 오무라 번에서 기리시탄들이 발각되었습니다. 제 17대 나가사키 부교 구로카와 요헤이 마사나오는 608명의 기리시탄을 검거하고 그중 411명을 참수했습니다.

그림 1

《성체성사의 그림》  
(아마쿠사 시로 진중기(陣中旗)) 1637년  
(아마쿠사 시립 아마쿠사 기리시탄관)

그림 2

《후미에》 일부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 『일본』 발췌, 19세기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소장